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도서관문화를 창출하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 두 영

도서관의 발전은 전통과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으로 이어지는 진화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진화적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과거의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은 이제 “전통적인 도서관”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고, 새로운 정보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도서관이란 명사 앞에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는 형용사가 붙어 왔다. 컴퓨터의 출현과 함께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를 강조하는 “자동화도서관,” 도서관의 보유장서가 전자형태로 변환해야 한다는 “전자도서관,” 효율적인 자원의 공유는 정보자원의 디지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원격접근을 강조하는 “네트워크도서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및 동화상 등의 정보형태를 강조하는 “멀티미디어도서관,” 인터넷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강조하는 “게이트웨이도서관,” 수많은 네트워크자원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상도서관,” 또는 “벽 없는 도서관” 등의 명칭들은 근래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름들이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도서관의 발전과정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키워드들이기도 하다.

미래학자들은 “종이 없는 사회,” 또는 “인쇄매체의 종말”을 예언한 바 있었고, 지난날 마이크로 필름이 개발되었을 때도 모든 도서관자료는 마이크로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의 디지털시대에서는 모든 도서관자료가 디지털형태로 전환될 것이며 미래의 도서관은 곧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인식이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도서관도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예컨대 모든 도서관이 이미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후 세대 이용자들에게는 자동화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화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따른다. 기존의 모든 인쇄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 또한 이용자의 요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디지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에 대한 요구도 크다는 점과 주제분야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화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각기 다르다는 점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온라인 원격접근이 디지털도서관의 대표적인 특

성이라고 볼 때, 작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규정은 디지털도서관 구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국립도서관, 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 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전송의 경우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것만 허용하고 전송 받은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불법적인 복제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OPAC, CD-ROM, VOD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새로운 도서관 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관문화가 신기술에 대한 지나친 열광이나 맹신으로 형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의 Hybrid Library 즉, “혼합형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전통과 새로운 기술과의 혼합과 공존을 의미한다.

즉, 인쇄형태의 자료와 디지털형태의 자료가 공존하는 도서관; 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의미하는 도서관의 “장소적” 요소와 디지털정보의 “공간적” 요소가 공존하는 도서관;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제공하는 도서관;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의 틀에 디지털매체를 통합시킨 도서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멀티플 미디어 도서관; 인쇄자료와 디지털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공존하되 경계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검색될 수 있는 도서관; 인터넷자원이 도서관장서의 일부로 개발되는 도서관; 사서에 의해 정보적 가치가 평가된 인터넷자원만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처리 기술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도서관 사서 - 등의 상황적 예들은 “공존과 혼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서관문화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전통과 신기술의 공존과 혼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서관문화가 형성될 때 도서관은 균형 있는 발전에 의한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또 다른 형용사가 도서관이란 단어 앞에 붙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도서관은 역시 “영원한 도서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